

겨울이 오기 전에

계절은, 시간은 흐를수록 우리에게 그만큼의 추억도 주지만
그만큼의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.

올 한해 어떠셨습니까?

좋은 추억이 더 많으신가요? 아니면 극복해야 할 시련이 더 많으셨나요?

모두 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그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되짚어 볼 시기입니다.

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가고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.

시간이란 참 빠릅니다.

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흰 눈이 내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될 때쯤이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겁니다.

그러니 지금까지의 것들을 찬찬히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?

그것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.





25 성탄절

26

2020